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0. 3.(월)12:00 (지 면) 2022. 10. 4.(화) 조간	배포 일시 2022. 9. 30.(금) 15:00
담당 부서 <총 괄>	기획조정실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원용연 (044-203-6771) 사무관 최근승 (044-203-6796)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로 한국어 사랑을 말하다!

-수상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역사·문화 체험 기회 제공 및 수상작 전시-

주요 내용

- 40개국의 재외동포 어린이 980명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일화나 느낌 등을 솔직하게 표현한 우수한 작품 제출
 - 수상작 전시회(14편)를 교육부와 국회에서 두 차례 개최하고, 수상자와 보호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모국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이하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10월 4일(화)부터 11월 20일(일)까지 개최한다.
 - 그림일기 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의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개최 중이다.
 - 올해 그림일기 대회는 6월 14일(화)부터 8월 12일(금)까지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40개국의 재외동포 어린이 980명이 대회에 참가하였고, 이 중에서 총 14명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1명), 국회교육위원장·이사장상(각 1명), 최우수·우수·장려·인기상(각 2명), 특별상(3명)
 - 올해는 참가대상을 재외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재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 거주 5년 이상인 만 12세 이하 재외동포 어린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라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 참가자 수: (2021년) 446명 → (2022년) 980명 / 전년 대비 534명 증가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박시인 어린이(중국 대원국제학교)는 한국어 자음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음이 혀바닥이나 입술모양으로 소리가 나는 것을 신기해하면서, 자랑스러운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 너무 멋져 꿈속에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그림과 함께 적절히 표현하였다.
- 국회교육위원장상을 받은 태진영 어린이(파라과이한국학교)는 스페인어와 다르게 한국어에서 ‘우리’라는 말을 쓰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나’보다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해답을 독도에 대해 배우면서 알게 되었음을 그림일기로 잘 표현하였다.
- 이 외에도 받아쓰기 공부를 통해 우리말 속담을 배운 경험을 소개한 작품, 태권도 사범이신 아버지처럼 한국말과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작품, ‘단골’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선조들의 깊은 뜻을 깨닫고 훌륭한 한글을 많은 세계인이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현한 작품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한편, 수상작 전시회는 2차례 개최될 예정이며 10월 4일(화)부터 11월 4일(금)까지는 교육부에서, 11월 7일(월)부터 11월 20일(일)까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상작이 전시된다.
- 전시회 기간 중에 더 많은 사람이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누리집(<https://ikefkids.kr>)’을 통해 온라인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수상자 초청행사도 재개할 예정이며, 수상자 어린이와 보호자(28명)를 한국으로 초청해 10월 11일(화)부터 10월 15일(토)까지 한국 역사와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그림일기 대회를 통해 재외동포 어린이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과 문화를 함께 배워 민족정체성을 지닌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2년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개요
 2. 수상장 명단 및 참가자 현황
 3. 수상작 2편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책임자	과 장	원용연 (044-203-6771)
		담당자	사무관	최근승 (044-203-6796)
			주무관	정은선 (044-203-6792) 선수진 (044-203-6790)
	국제한국어교육재단	담당자	선임과장	조올가 (070-7718-8536)
			담당	신메림 (070-7718-9084)



□ 사업 개요

- (사업명)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 (접수 기간) 2022. 6. 14.(화) ~ 8. 12.(금), 60일간
- (참가 대상) 한글학교와 한국학교에 다니는 재외동포(국민) 학생 중 해외 거주 5년 이상인 자 (보호자 동행하여 한국 문화체험 가능한 자)
※ 단, 만 5세 미만은 해외 거주 자격 제한 없음
- (참가 내용) 한국어·한국문화·한국역사를 배우면서 느낀 것을 그림일기로 표현
- (시상 내용) 총 14명 (※ 수상자 14명은 한국 역사·문화체험 기회 부여)
- (주최/주관) 교육부 / 국제한국어교육재단

□ 한국 역사·문화 체험 학습연수

- (체험 대상) 총 28명(수상자 14명, 보호자 14명)
- (체험 기간) 2022. 10. 11.(화) ~ 10. 15(토), 4박 5일
- (체험 내용)
 - (교육 체험) 교육부 방문 및 시상식
 - (문화 체험)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체험 및 온양민속박물관
 - (역사 체험) 한글박물관, 경복궁 방문 등

□ 작품 전시 계획

구분	교육부	국회
설치장소	14-2동 1층 로비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
전시기간	2022. 10. 4(화)~11. 4(금)	2022. 11. 7(월)~11. 20(일)
설치 내용	수상작 포함 우수작품 설치 및 대회 기념품 등	

붙임2

수상자 명단 및 참가 현황


□ 수상자 명단

순번	수상 구분	국가	학교명	성명	제목
1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중국	대원국제학교	박시인	한글공부
2	국회교육위원장상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태진영	우리나라, 나의나라
3	이사장상	튀르키예	이스탄불 세종 한글학교	박하진	작은 고추가 맵다
4	최우수상	스페인	마드리드 한글학교	조세진	마드리드 한글학교 수업
5	최우수상	호주	린필드한국학교	박서진	박 과 팍
6	우수상	브라질	작은씨앗교회 한글학교	홍제희	한국 사람은 나무?
7	우수상	튀니지	튀니지 한글학교	장태양	도장에 간 날
8	장려상	일본	미야자키 민단 어린이 교류 교실	김미경	발음이 좋지 않은 내 한국어
9	장려상	멕시코	재 멕시코 한글학교	조하라	콩지 따기 말놀이
10	인기상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	박에스더	단골손님
11	인기상	캐나다	예수성심주일한글학교	김지후	이용
12	특별상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토요한글학교	방하윤	사슴벌레가 궁금해!
13	특별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최 한	내 생일
14	특별상	미국	세종한국학교	김이안	내 이름은 김이안

□ 참가 현황 40개국 980명

순번	국가	참가자 수	순번	국가	참가자 수
1	중국	264	21	튀니지	5
2	호주	143	22	러시아	4
3	미국	116	23	아르헨티나	4
4	뉴질랜드	57	24	대만	3
5	일본	43	25	말레이시아	3
6	독일	42	26	튀르키예	3
7	영국	35	27	네덜란드	2
8	베트남	33	28	스리랑카	2
9	캐나다	33	29	스위스	2
10	필리핀	28	30	스페인	2
11	인도네시아	22	31	슬로바키아	2
12	홍콩	22	32	카타르	2
13	브라질	19	33	폴란드	2
14	싱가포르	16	34	도미니카	1
15	멕시코	13	35	모로코	1
16	파라과이	13	36	아일랜드	1
17	프랑스	12	37	이란	1
18	태국	10	38	이집트	1
19	이탈리아	9	39	케냐	1
20	인도	7	40	탄자니아	1

이름: 박시인	국가: 중국
학교: 대원국제학교	나이(만): 7세
날짜: 2022년 7월 10일 일요일	날씨: ☀ ☁ ☂



제목: 한글공부

오늘은 한글을 배웠다. 자음+모음+받침의 구조를 배웠는데 너무 어려웠다. 특히 “ㄴ” 발음이 안 났는데 선생님께서 “혀를 사용해 보세요” 라고 하셨다.

나는 열심히 따라했고 “ㄱ, ㄴ, ㅅ”은 혀바닥, “ㄱ 과 ㅅ”은 입술 모양으로 소리가 나와서 너무 신기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세종대왕님이 너무 멋져요”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엄마도 세종대왕님이 제일 멋져요”라고 칭찬하면서 엄지손가락 두개를 들어 올리셨다. 한글이 우리나라 것이라는게 자랑스럽고 오늘은 꿈속에서 세종대왕님을 만나고 싶다.

국회 교육위원장상 [파라과이 / 태진영 / 8세]

이름: 태진영	국가: 파라과이
학교: 주 파라과이 방송학교	나이(연): 8살
날짜: 2022년 7월 3일 일요일	날짜: ☀ ☁ 🌧



제목: 우리 나라, 나의 나라

“너 왜 저국 ‘우리 학교, 우리 반’이라고 해?” 현지학교 친구들이 나에게 묻는다. 그때부터 내 고민은 시작됐다.

스페인어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잘 안쓰는데 왜!!! ‘우리’라는 말이 있는 거지? 스페인어에서 ‘우리’는 언제 쓰는지? 한국어는 우리집, 우리 가족, 우리 나라 거의 다 ‘우리’인데 왜 스페인어는 내 집, 내 가족, 내 나라 인거지? 왜 스페인어는 ‘나’ 인거지? 너무나 헷갈렸다 도대체 어찌든 ‘우리’라는 말이 타당한 걸까? 나는 그 해답을 한국학교에서 ‘독도’에 대해 배우면서 알게 되었다.

독도는 혼자 있는 섬이다 하지만 독도를 빼앗기면 우리나라가 빼앗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우리’라는 말이 있는 것 같다.

이직은 내가 스페인어로 우리가 왜 ‘우리’라는 말을 쓰는지 현지 친구들에게 잘 설명하지는 못하겠다. 그렇지만 더 보면 스페인어에서 왜 ‘우리’ 대신 ‘나’를 말하는 이유까지도 잘 설명할 수 있겠지?